

빌레레 그랑 데이트 데이 레트로그레이드

블랑팡이 빌레레 컬렉션에서 새로운 컴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바로 요일을 레트로그레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그것이다. 빌레레 그랑 데이트 데이 레트로그레이드(**Villeret Large Date Retrograde Day**)를 통해 선보이는 이 기능에 두 개의 창으로 표시하는 라지 데이트 기능도 추가되었다.

클래식한 세련미. 이것이 새로운 *빌레레 그랑 데이트 데이 레트로그레이드(Villeret Large Date Retrograde Day)*가 전하고자 하는 키워드다. 이를 통해 블랑팡이 시계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빌레레 컬렉션의 시그너처이기도 한 더블 스텝(*double pomme*) 베젤, 얇은 두께, 우아하면서도 정제된 바늘과 인덱스를 발견할 수 있다. 블랑팡이 특허를 받은 특별한 언더-러그 커렉터 덕분에 보통 케이스 측면에 구멍을 내 만드는 캘린더 세팅 디테일을 없애고 깔끔한 옆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일은 감춰진 코렉터를 통해 손가락으로, 날짜는 크라운을 통해 조정할 수 있어 캘린더 메커니즘 조정에 별도의 푸셔나 도구가 필요 없다.

시각적으로 균형감을 선사하기 위해 요일은 7시와 9시 사이를 따라서, 그리고 라지 데이트 창은 5시와 6시 사이에 놓았다. 라지 데이트와 요일이 자정이 되는 순간 즉시 변하고, 레트로그레이드 요일이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돌아가는 모습이 새로운 *빌레레 그랑 데이트 데이 레트로그레이드(Villeret Large Date Retrograde Day)*의 세련미를 더욱 강조한다. 캘린더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이 새로운 모델은 반대쪽 끝에 블랑팡의 이니셜을 품은 가늘고 긴 중앙 초침을 갖추고 있다.

이 빌레레 모델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6950GJ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72 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두 개의 메인스프링 배럴을 갖춘 칼리버 1150 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섬세한 코트 드 제네브(*Côtes de Genève*) 피니싱과 골드 로터를 장식하고 있는 벌집 모양 기요세 모티브는 투명한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새로운 *빌레레 그랑 데이트 데이 레트로그레이드(Villeret Large Date Retrograde Day)*는 실버 오팔린 다이얼의 레드 골드, 화이트 다이얼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선보이며, 모두 약어 가죽 스트랩과 메탈 브레이슬릿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름은 모두 40mm 사이즈로 소개한다.